

백석 시의 ‘무속성’과 식민지 무속론

- 백석 시의 ‘무속적 상상력’ 재고

김은석(동국대)

〈목 차〉

1. 문제 제기
2. 1930년대 무속론과 ‘민속학적 사고’의 출현
3. 문단 ‘신세대’와 백석의 무속적 상상력·양식의 향수와 재창조
4. 결론을 대신하여

핵심어: 백석, 무속적 상상력, 무속성, 식민지 무속론, 신세대, 양식, 문화적 정체성

1. 문제 제기

백석 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언’, ‘고향’, ‘토속 음식’, ‘원형’ 등과 같은 키워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증명하고 있듯, 백석 시의 특징으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그 중에서도 백석 시에 나타나는 ‘민속(무속)’에 대한 관심은 근대의 풍경에 매혹되었던 1930년대 이미지리스트들과 백석을 분명하게 구별짓는 테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백석 시의 이러한 개성은 그의 시가 유달리 평안도 방언을 고수하면서 고향의 풍경을 재현한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백석의 시사적(詩史的) 공헌은 설화와 민속(신앙)의 수용, 토속어의 아름다움 추구, 이야기체의 말하기 방식을 계발한 그의 실험 정신에

둘러지곤 한다.¹⁾ 한동안 재북(在北)작가로 소외되어 있었던 백석 시 연구에 초석을 마련한 평가로 김윤식·김현의 『현대문학사』(1973)를 거론하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들은 백석이 “民俗 그 자체를 시의 대상으로 삼은 시인”이며 “샤머니즘이 지배적인 산골마을의 風景描寫를 통해 白石은 독자들을 民譚의 세계로 인도”²⁾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의 사투리가 김영랑의 그것과 다르게 폐쇄된 사회의 민속을 되살려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 ‘샤머니즘적 세계에의 탐닉’을 통한 비극과 체념의 세계관이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같은 절창을 만들어냈다는 해설은 지금까지 축적된 백석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이 관점에 따라 백석 시를 이해할 때, 민간 신앙을 모티프로 한 ‘무속성’이나 ‘무속적 상상력’은 백석 시 연구에 중요한 미학적 지위를 획득한다. 김영랑과 정지용으로 대표되는 1930년대 시문학과와 시적 경향과 확연히 구분되는 무속성은 ‘샤머니즘적 세계’의 반영이며 그것은 백석과 동시대에 활동한 김동리, 서정주 등 훗날 이른바 ‘문협정통파’의 정신사적 근거로서 한국 문학사에서 특정한 계보를 갖는 주제이기도 하다. 백석 시의 무속적 사유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은 그것이 ‘고향’과 같은 토속공간의 원형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³⁾ 이러한 논의들에서 백석 시의 ‘무속성’⁴⁾은 민족 공동체의 전형을 시화(詩化)했다는 점으로 평가되거나, 그것이 계몽주의적 근대의 유입

1) 남기현, 「현대시의 형성기(1931~1945)」, 오세영 외 지음, 『한국현대시』, 민음사, 2007, p.187. 백석이 활동한 1930년대 문학 현실은 문학 소통 환경으로서 발표 매체의 증가,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과 민족어에 대한 재발견과 자각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백석의 ‘방언’과 ‘고향’이 당대적 의미를 갖는 조건이기도 하다.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18면.

3) 백석 시 연구에서 특히 무속성을 주제로 한 논문은 오태환, 「혼과의 소통, 또는 무속적 요소의 문학적 층위-김소월·이상·백석 시의 무속적 상상력」, 『국제어문』 42집, 2008 ; 전형철, 「백석 시에 나타난 <무속성> 연구」, 『우리어문화회』 『우리어문연구』 32집, 2008 참조.

4) 이 글에서 ‘무속성’과 ‘무속적 상상력’은 민간 신앙의 소재나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지칭하는 용어로 선행연구의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엘리아데가 말하는 샤머니즘(shamanism)은 고대의 점신술이자 넓은 의미의 ‘종교’의 하나이다. 샤머니즘은 변화무쌍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전통에서 재현되기도 하고, 세계 주요 종교와 공존하기도 한다. 샤머니즘은 제도적 체계나 중앙 집권화가 없기 때문이다. ‘샤머니즘’과 ‘무속’에 관해서는 두 용어가 서로 호응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엄밀한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용어상으로 ‘샤머니즘’보다는 ‘무속’이 무당이나 굿, 단골 등 당대 민간신앙의 구체적인 관례들과 더 가까운 용어라 여겨진다. 샤머니즘에 관해서는 비렘스키, 김성례·홍석준 옮김, 『샤먼』, 창해, 2005, 154~156면 참조.

속에서 타과 대상으로 간주된 소재였다는 다소 일반적인 진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무속성’을 ‘그리움의 원형적 공간’, ‘생명성 넘치는 보편적인 삶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백석 시가 지닌 한 지향점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는 그의 시세계가 위치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무심할뿐만 아니라 그 주제의 당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백석 시의 ‘무속성’이 백석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미학이 아니라 동시대의 공유 가능한 주제였다는 점에 접근하여 백석 시에 나타난 ‘무속적 상상력’의 당대적 컨텍스트를 고찰하고자 한다.

백석은 1935년에 『정주성』으로 등단해 36년 첫 시집 『사슴』을 발간했고 해방 이후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이 때 그가 참여한 매체 환경 속에 『문장』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1930년대 후반 문화 담론의 지형 속에서 그의 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⁶⁾ 백석의 방언이 재현하는 ‘고향’은 근대 문명세계로부터 절연된 공간으로 무속의 풍습이 온존한 곳이다. 이러한 풍경이 시적 세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식민지 무속의 위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당시 문단의 ‘신세대’를 형성한 김동리, 서정주, 정비석, 박두진, 유치환 등은 ‘전근대’, ‘동양을 통해 미적 세계를 탐구하는 뚜렷한 문학적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작품 세계는 근대가 침범하기 이전의 전근대적 가치와 이미지를 포함한 것이다. 1930년대 문단의 신인으로서 백석의 문학성 역시 이러한 신세대의 경향에 견주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사(神社)정책이 강조되고 있었다. 무속 신앙이 고유신앙으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일본 신도신앙의 침투라는 배경하에서였다. 그것은 한국의 무속신앙이 일본의 원시 신도(原始神道)의 ‘잔존 survival’이라는 조선총독부 촉탁들의 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 잔존설은 일선동조론을 뒷받침해 주는 문화의 진화이론으로, 일본의 신도와 한국의 무

5) 이승원의 간결한 표현을 빌리면 백석 시의 지향점은 “풍속과 인정과 말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삶의 복원”에 있다. 이승원, 『백석 시의 심층적 탐구』, 대학사, 2006, 136면.

6)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백석은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조광』의 편집자로 근무했다. 그런 이유로 『조선일보』와 『조광』에 백석의 작품이 가장 많이 실려 있지만, 『문장』을 통해서도 「넙넙집 범갈은 노큰마니」(1939. 4), 「동노부(童尿賦)」(1939. 6), 「함남도안(咸南道安)」(1939. 10), 「목구(木具)」(1940. 2), 「북방(北方)에서-정현웅(鄭玄雄)에게」(1940. 7), 「허준(許俊)」(1940. 11), 「국수」(1941. 4), 「흰바람벽이 있어」(1941. 4), 「촌에서 온 아이」(1941. 4)를 발표한다.

속과의 “동원(同原)”은 한일문화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되어 일제의 조선통치를 역사적, 문화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담론적 역할을 했다.⁷⁾ 백석의 무속적 상상력은 이러한 식민지 무속론의 맥락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930년대의 ‘신인’ 백석의 시적 화자는 현재의 위치에서 회상된 과거를 전경화한다. 이 때 자연에 묻힌 고향 마을은 무속이 존재하는 일종의 민속적 장소로 나타난다. 예컨대, 약수터의 ‘藥물’을 받기 위해 ‘산’을 넘어 ‘산비’를 맞으며 오는 아이가 있고 “아래 사마을에서는 애기무당이 작두를타며 굿을하는때가 많”은 「三防」에는 무속적 치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병을 앓을 때면/신장님단련이라고하는 가르랑집 할머니가/구신의 딸이라고생각하면 슬며졌다”(「가르랑집 머니」)고 말하는 시적 자아에게 무속은 자신의 근거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종종 원형적 세계의 탐구로 평가되어 왔지만, 일제의 식민지 동화정책으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 무속의 복권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속’은 백석의 시에서 의미 있는 ‘과거’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2. 1930년대 무속론과 ‘민속학적 사고’의 출현

백석 시가 즐겨 다루는 토속 음식들과 무속과 관련된 소재들은 1930년대 후반 문학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알려진 대로, 이 시기 ‘조선적인 것’의 회복에 관한 기획들은 일제 파시즘의 대두와 조선학의 성장이라는 조건에서 발현된 ‘고전주의’, ‘전통주의’로 인식되어 왔다. 그것은 『문장』을 주도한 이병기, 이태준, 정지용 등 문장과 이념의 핵심에 해당한다. ‘조선적인 것’은 세계 문화의 한 지역적 특성을 지시하는 명칭일 뿐만 아니라 과거적인 것(전근대, 봉건 등)을 표상하는 기호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 탐구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조선의 과거’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⁸⁾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문장과 같은 문화 엘리트들의 유교적 교양과 선비 취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면, 1930년대 후반 문학과 ‘무속’의 관계는 상당히 낮설고 이질적인 것이다. 민간의 전통 신앙인 ‘무속’은 ‘과거적

7)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 서경문화사, 1999, 6면.

8)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시간·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사논문, 2002, 29면.

인 것'이기 때문에 '조선적인 것'에 포함되지만 '조선적인 것'이 표상하는 '과거'는 비동시적인 것의 공존, 다시 말해 비균질적 세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김남천이 “지금 우리들은 민속적인 것이 대단히 환을 받고 있는 현상을 벌써 썩 전부터 보고 있다”⁹⁾면서 김동리의 민속 취미를 언급한 것은 당대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균질적 세계의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무속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지역적 풍속, 변방의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주의적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변방의 문화라는 점에서 무속은 '민속'의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는 대상이다. '민속(民俗)'¹⁰⁾은 그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민간에 전해오는 전반적인 생활풍속을 의미하며 주로 도시 문명의 반대편에 있는 하층 계급의 문화를 다루면서 특정한 집단, 전통, 주변에 관심을 갖는다.¹¹⁾ 하층 계급의 민간신앙으로서 무속 역시 이러한 특징을 지닌다. '민속'이 환영 받고 있는 상황은 1930년대 성장한 조선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민속학'의 영향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흥미로운 점은 개화기에는 미신으로 부정되고 배척되었던 무속이 조선적인 정체성으로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이인직의 「은세계」, 「구마검(驅魔劍)」과 같은 개화기 소설에서 근대화의 이름으로 척결할 대상이었던 무속의 세계가 1930년대 이르러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자족적인 공동체로 재현되는 양상은 1930년대 '민속학'이라는 컨텍스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¹²⁾ '민속학'이라는 지식 체계의 창출과 그 영향이 『문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1930년대 민속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9) 김남천, 「민속의 문학적 개념」, 『동아일보』 (1939. 5. 10).

10) '민속(民俗)'은 '민간의 전승' 또는 '민간의 풍속'이란 말의 약어로 민간의 고대문물·풍속·제도·유물·신앙·구비전승 등을 총칭할 수 있는 용어로 고안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무속'을 아우르는 포괄적 범주로서 '민속'을 사용할 것이다.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9, 1장 참조.

11) 민속학의 관심은 집단과 집합체로서의 공동사회적인(communal), 특별한 경우보다는 일상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common), 권력과 특권의 핵심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주변적인(marginal), 시간적 지속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traditional)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엘리엇 오링, 나경수 역, 『민중과 민속의 장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6-26면 참조.

12) 식민지 시기 문화와 '샤머니즘', '민속학'을 다룬 논문으로는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ethnography)의 형성」, 한국현대학회, 2006; 조현일, 「문장과 이후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김동리의 '비극적인 것'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 2007. 참조.

시사적이다.

조선학의 분과학문으로서 민속학은 일본에서 최초로 수입된 이래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가 『향토연구』로 개념화한 것이다. 토착 민속학의 학문 분과는 시골에서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는 흔적, 존재의 선형적 기억을 상기 시킴으로서 근대 생활에서 경험된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탐구된 것이었다.¹³⁾ 야나기타 구니오는 ‘보통의, 변치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을 의미하는 ‘상민(常民)’을 민속학의 전승 주체로 보고 ‘본래적 공동체’를 중시했다. ‘본래의, 유기적 공동체’와 그것의 영원한 민중에 대한 호소는, 사회적 분열이나 역사적 계급들의 힘에 대한 위협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었다. 1930년대 후반 민속학 그룹은 대동아 민속학이라 일컬어진 보다 큰 동일성을 망라하는 기반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통합과 결합을 강요하는 제국과 식민지 정책의 다양성에 이데올로기적 지원을 보냈다.¹⁴⁾ 일본 민속학은 제국이라는 지리적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식민지를 통합시키고 그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활용된 것이다. 민속학은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했고, ‘민속’의 문학적 전유 방식은 제국의 식민지 정책의 억압성에 대한 현실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문장』에 개입한 민속학자들은 일본의 ‘민속주의’와 별개로 조선에서 ‘무속’을 포함한 ‘민속’의 발견을 통해 조선이라는 과거를 구성하게 된다. 가령, “조선처럼 문헌이 없는 예도 적다. ...이런 고로 문헌상으로 연구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사학같은 방면은 모르거니와 민속학과 같은 민중을 대상하는 학문에는 곤란”¹⁶⁾하다는 송석하의 글은 민속학의 자료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민중’의 성격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중’은 “문자 해독하는 자가 불과 얼마 안된데다가 뭇쓸 버릇으로 문자를 줌알기 시작하면 양반될라는 행습인지 민중하고 관계되는 말은 一字 一句를 쓰지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민속학자들

13) H. D. Harootunian, 'Figuring the Folk-History, Poetics, and Representation', Stephen Vlastos, 『Mirror of Modernity-Invented Traditionals of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146면.

14) Harootunian, 위의 글, 158면.

15) 일본의 지배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식민지 조선의 무속과 고유신앙에 대해서는 坂野 徹, 『帝國日本と人類學者:一八八四—一九五二年』, 勁草書房, 2005, 310-320면 참조.

16) 송석하, 「모집단상」, 『문장』, 1939.

이 견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 방법론에서 ‘민중’은 멀시와 천대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무당을 지칭하는 ‘무격’을 가리켜 아직도 그 위력을 갖는 ‘무격적 과학’이라고 평가한 손진태는 “‘무격적 과학’이 현대를 따라 그 시대 시대의 과학을 흡수하고 그와 조화하여써 민중의 정신생활을 꾸어온 까닭”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 무격적 미신이 유해하다할지라도 사람생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서는 무격의 연구는 가히 중요한 연구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손진태는 ‘무격적 문화’는 과학사상의 보급과 함께 당연히 없어질 것이며 또 없애버려야 할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학문을 위하여 그 資料의 수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¹⁷⁾이라고 강조한다.

손진태가 주목한 조선의 무속은 조선총독부의 촉탁들과 ‘심전개발(心田開發)’의 명목으로 이뤄진 식민지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통제되는 정치적 관심 대상이었다. 조선 민속에 대한 관심은 손진태와 송석하뿐만 아니라 무라야마, 아키바와 같은 식민주의 민속학자들의 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¹⁸⁾ 심전개발은 조선 농촌사회의 전통성의 중심에 미신(未信) 대신 일본의 의사(擬似)전통성인 국체관념을 위치시키려고 하는 시책으로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모순되는 것 같은 미신으로서의 민간신앙이 조선의 전통문화로서 “재발견”되어 정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심전개발정책은 점차로 총동원체제로의 진전에 따라서 국체(國體)운동으로 확대되어 갔다.¹⁹⁾ 『문장』에 한정해 말한다면, 1930년대 후반 민속학의 한 측면은 민중의 고유한 습속을 수집함으로써 조선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존속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송석하는 “향토예술은 그 흙이 낳은 가장 그 환경에 적절한 예술로서 장차에 건설될 문화와 예술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재음미

17) 손진태, 「무격(巫覡)의 神歌」, 『문장』, 1940, 9. 164~165면.

18)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 민속은 훼손과 말살의 대상만이 아니라 때때로, 게다가 적극적으로 ‘조장’과 ‘진흥’의 대상이기도 했다. 민속학적 담론과 실천이 동시대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식민지 조선을 연구한 일본 민속학자들에 대해서는 주영하·임경택·남근우,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참조.

19) 최석영, 앞의 책, 131~132면.

함은 우리들 문화인의 의무이며 寬度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봉산의 복면무용극을 해설한다. 그는 “봉산의 복면무용극이 연극학상 특이한 존재로 가히 세계에 자랑할만한 존재인것만은 굳게 믿는다”²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봉산 복면무용극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송석하가 말하는 봉산 복면무용극은 역사적 사료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향토예술’이라는 특정한 관념 속에서 선택된 것이다. ‘향토예술’이나 ‘무격적 과학’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은 ‘민속학적 사고’를 통해서이다. 민속학적 사고는 국가라는 단위의 문화가 존재하고, 넓게는 국가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준다.²¹⁾ 1930년대 식민지 무속론에 내재된 정치성과 민속학적 사고의 맥락에서 백석 시의 ‘무속성’은 개인의 기억 속에서 고유한 문화로서 ‘무속’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문단의 ‘신세대’와 백석의 무속적 상상력

- ‘양식’의 향수와 재창조

1930년대 백석의 출현은 ‘향토’와 ‘지방색’으로 논의된 점이 주목된다. 김기림은 백석을 통해 “그 외관의 철저한 향토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착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²²⁾를 지닌다고 말한다. 백석이 보여주는 ‘철저한 향토취미’가 ‘모더니티’를 품고 있다는 것은 시인 자신의 내면의 언어를 인식할 수 있었던 모더니스트 백석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반면, 임화는 백석의 첫 시집을 ‘지방주의’ 문학으로 보고 있다.

그곳(「사슴」-인용자)에는 생생한 생활의 노래는 없다. 오즉 이제 막 소멸할 나고하는 과거적인 모든 것에 대한 뜻없는 애상 그것에 대한 비가(悲歌)이다. 요컨대 현대화된 향토적 목가(牧歌)가 아닐까?...나는 이 야릇한 방언을 「사슴」 가운데 표현된 작자의 강렬한 민족적과거에의 애착이라 생각코있다...두 작가(백석과 김동리-인용자)가 공히 지방색, 그것을 전조선적생활현실의 보편적 높이에서 파악하고있지 않는 즉 지방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자기의 예술을

20) 石南, 「解說」, 『문장』, 1940, 6·7합호, 274~275면.

21) 岩竹美加子 편역, 『民俗學的政治性』, 未來社, 1996, p.11~12 참조.

22)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1936. 1. 29), 『김기림전집 2』, 심설당, 1988.

얇은 ‘시골뚝이문학’의 경지에 방도(方途)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만일 조선문학의 특성을 ‘조선색’이나 ‘지방색’에서만 발견하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조선문학을 식민지문학으로 고정화할나는 자일 것이다. 우리는 조선문학의 세계적 수준, 세계문학적 의미를 갖는 조선문학의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이다.²³⁾

이 글은 백석의 시집의 특징과 그 ‘지방색’의 한계를 간파한 평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석과 동시에 「무녀도」와 「황토기」를 쓴 김동리 역시 ‘지방주의’ 문학을 표방한 작가로 언급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임화의 글은 우선 ‘지방주의’ 문학이라고 부를 만큼, 당대 문학의 ‘지방색’, ‘조선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백석의 특수한 방언의 선택이다. 임화는 백석의 작가적 개성을 긍정하면서도 소멸의 운명에 직면한 민족적 과거에 집착한 그의 시세계를 ‘현대화된 향토적 목가’로 규정한다. 임화는 그것을 ‘복고적 퇴화’로 보면서 ‘조선색’, ‘지방색’에 대한 과도한 경도는 조선문학을 ‘식민지문학’으로 고정화하는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 식민지 지방성으로서 ‘시골뚝이문학’은 조선문학 건설의 미래적인 지향과 반대되기 때문에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화의 미래적인 지향과 반대편에 선 김동리의 경우 「무녀도」뿐만 아니라 「황토기」, 「두꺼비」 등 민간의 설화와 전설을 모티프로 원형적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백석과 김동리 등 고대의 흔적과 설화를 가공한 작품들이 『문장』에 출현한 것은, ‘과거’에 대한 탐구와 자기정체성의 확인이라는 주제와 결부된다. 이 ‘과거’는 근대의 수용 속에서 사라진 원형 다시 말해, 서양문화에 대한 동양의 발견이며 ‘서양=근대’를 극복하기 위한 근대초극론으로서 제시된 것이다.²⁴⁾ 이러한 경향은 김동리가 “신세대의 문학정신은 인간의 개성과 생명의 구경추구에 있다.”²⁵⁾고 피력한 1930년대 후반 ‘신세대’²⁶⁾ 문학의 한 노선을 차지하고 있다. 백석 시의 무속성 역시 당대 문단적

23) 임화, 「문학상(文學上)의 「지방주의」 문제」, 『조광』, 1936. 10 174~175면.

24) 이 시기 동양론에 관해서는 정중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박사논문, 2005, 참조.

25)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문단 「신생면」의 성격, 사명, 기타」, 『문장』, 1940. 5 p.86. 이 글에서 김동리는 「무녀도」에서 「東洋精神의 한 상징으로서 취한 ‘모화’의 성격은 표면으로는 동양정신의 한 대표로서 취한 예수교에 패배함이나 다시 그 본질세계에 있어 悠久한 승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근대(서양)에 대한 ‘동양’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흐름과 평행하는 지점에 있다. 정비석의 『성황당』(1937)과 김동리의 「무너도」(1936)에서도 확인되는 무속에 대한 관심은 설화적 공간을 통해 현실에서 사라져가는 변방의 문화를 조명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선색’은 그러한 지역적 감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김동리가 말한 ‘신세대’ 문학은 당시 문단의 빈약한 전통 위에서 구가해야 할 새로운 문학 정신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조선문학의 주체성과 작가 자신의 전통에 대한 자각이 신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문학적 이념이라고 보았다. ‘신세대’ 시인 김종한은 ‘전통 유산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시의 습작생’들을 높게 평가하는 임화의 신세대론에 반발하여 “한 민족의 문학”은 “풍토와 민족성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²⁷⁾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시 경향파 문학의 대표였던 임화와 달리 그가 백석을 일컬어 ‘조선색이 농후(濃厚)한 잠미즘’의 시인으로 고평한 것은 백석의 ‘조선색’을 새로운 문학적 이념을 보여주는 신세대의 성취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백석의 시에 끊임없이 출몰하는 지명(地名)과 토속 음식들, ‘신라’, ‘고구려’, ‘소수림왕’, ‘지나 백석’ 등 고대의 역사를 상기하는 시적 화자는 유년 시절의 공간을 재현한다. 그의 시에 나타난 무속적 상상력은 근대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비합리적 힘에 관한 경험에서 비롯한다. 종교적 신비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백석 시의 ‘샤머니즘적 세계’는 근대 세계의 변두리에 해당하지만 시적 화자는 회상을 통해 그 세계와의 유대감을 지속한다.

눈이 오는데

26) 김동리는 1933년에서 36년에 이르는 무렵을 범문단 형성기라 보고 이전의 동인제와 추천제와 달리 신춘문예의 성황으로 모든 문인 지방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대다수 신인 배출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 문단의 조류로 신세대론을 언급하면서, 임화 일파들이 신인 작가들을 공박하면서 으레кет 체질이 맞지 않는다, 사회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기성과 신인의 대립된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누구에 의하여 세대 논의로 번져갔는지는 똑똑히 모르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세대 논의로 번져가고, 나 자신도 할 수 없이 그 속에 휩쓸려들게 되었던 것만은 잘 기억하고 있다. 신구(新舊)의 싸움(논쟁)은 대개의 경우 신(新)의 쪽에서 싸움을 거는 것이 상례인데, 이 경우에는 구(舊)에서 먼저 발의(發議)된 것이 그 무렵 세대 논의의 특징이라 하면 특징이라고 하겠다. 기성이 신인을 향해 두렵지 않다고 외친 내면에는 이미 신인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김동리, 「그 무렵의 문단 신세대」, 「나를 찾아서」, 김동리전집 8, 민음사, 1997, 190~193면.

27) 김종한, 「詩文學正道-참된 「詩壇의 新世代」 에게」 『문장』, 1939, 10, 199면.

토방에서는 질화로응에 곱돌탕관에 약이 끓는다

...(중략)...

그리고 다 달인 약을 하이얀 약사발에 받아들여놓은 것은

아득하니 감아야 萬年넛적이 들은 듯 한데/나는 두 손으로 고히 약그릇을 들고
이 약을 내인 넷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내 마음은 끝없이 고요하고 또 맑아진다

「湯藥」(1936)²⁸⁾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수 없다

자 방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구신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뜨막에 조양님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령에 대석님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텅능구신

나는 이제는 할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세인 수문장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1948)²⁹⁾ 중

어스름저녁 국수당돌각담의 수무나무가지에 너귀의탕을 걸고 나물매 갖후어
놓고 비난수를 하는 젊은새약시들—잘먹고 가라 서리서리물러가라 네소원풀
었으니 다시침노말아라

별개높역에서 바리깨를뚜드리는 쇠소리가나면

누가눈을얹어서 부증이나서 찰거마리를 붙으는것이다

마을에서는 피성한눈썹에 절인팔다리에 거마리를 붓인다

여우가 우는밤이면

28) 이승원 주해, 『원본 백석 시집』, 깊은샘, 2005 122면.

29) 이 시는 백석이 전쟁 전부터 쓴 작품들을 보관해오다 발표한다는 허준(許俊)의 부기(附記)로 보아 창작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잠없는 노킨네들은 일어나 낫을갈이며 방요를한다
여우가 주둥이를향하고 우는집에서는 다음날으레히 흉사가있다는것은 얼마나
무서운말인가

「오금덩이라는골」(1936)

「탕약」에서 검은 빛깔은 무심코 옛사람을 떠오르게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게 한다. 시적 화자에게 ‘탕약’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옛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에 가깝다. 눈오는 밤 시적 화자는 탕약의 빛깔을 보고 아득히 까만 ‘萬年 넷적’을 들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두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넷사람들’을 생각하는 교감의 순간은 과거와의 ‘끝없는’ 연결이며 그것이 화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백석 시에서 과거에 대한 동경과 유대를 강화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에 나오는 익살스러운 어린 화자는 자기 마을은 모두 귀신들밖에 없다면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주님, 디운구신, 조양님 등 자신의 마을을 관장하는 신비한 힘의 영역 밖으로(‘대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움 이전에, 현재의 관점에서 회상된 어린 시절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근거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마을은 ‘비난수를 하는 짧은 새악시들’의 주술의 힘이 아직 남아 있고, 또 그렇게 유지되는 근대의 규율에서 벗어난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백석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공동체는 일종의 샤먼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샤먼 공동체는 영혼관이 자연의 순환론과 결합해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회이기 때문에 샤먼의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의 영적 힘을 조절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 질병의 진단과 치유는 그 단일한 도덕적 우주를 재정립하고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행동으로서 ‘오염’을 정화하는 행위이다.³⁰⁾

황토 마루 수무남에 얼럭궁 덜럭궁 색동헌겹 뜯개조박 뽕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덤세기도 열린 국수당 고개를 뺏번이고 튀튀

30) 피어스 비텔스키, 위의 책, 110~114면.

춤을 뵈고 넘어가면 굶안에 안옥히 묵은 녁동이 묵업 기도할 집이 한채 안기었는데

집에는 언제나 센개같은 계산이가 벽작궁 고아내고 말같은 개들이 떠들석 짓어
대고 그리고 소거름 내음새 구수한 속에 엇송아지 히물쩍 너들씨는 데

집에는 아베에 삼춘이 오마니에 오마니가 있어서 젓먹이를 마을 청능 그늘밑에
삿갓을 써워 한종일내 뉘어두고 김을 매러 단녔고 아이들이 큰마누래에 작은
마누래에 제구실을 할때면 종아지물본도 모르고 행길에 아이 송장이 거적뽕기
에 밀려나가면 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였고 그리고 끼때에는 붓두막에 박아지
를 아이덜 수대로 주문히 늘어놓고 밥한덩이 질게한술 들여들여서는 먹었다는
소리를 언제나 두고 두고 하는데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옥실옥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채리를 단으로 찌다두고 딸이고 싸리갱이
에 갓진창을 매여 놓고 딸이는데

내가 엄매등이 업혀가서 상사말같이 향약에 야기를 쓰면 한창 뛰는 함박꽃을
밀가지 채 꺾어주고 종대에 달린 제물배도 가지채 찌주고 그리고 그 애끼는
계산이 알도 두손에 주곤 하는데

우리 엄매가 나를 갖이는 때 이 노큰마니는 어늬밤 크나큰 범이 한마리 우리
선산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것을 우리엄매가 서우서 시집을 온것을 그리고
무엇 보다도 내가 이 노큰마니의 당조카의 맏손자로 난 것을 다견하니 알뜰하니
깃거히 녁이는것이였다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1939)

이 시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성황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년시절 인상 깊
었던 노큰마니에 대한 추억을 보여주고 있다. 범같이 무서운 그녀는 손자 증손
자를 거느리며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나를 귀여워해주는 따
뜻한 인물이다. 농경 사회의 대가족을 이끌어나가는 여성의 힘은 이 시의 도입
부에서 그려진 야생적 풍경과도 연결되며 마을에 사는 대가족은 그 나름의 규

울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상된 과거를 통해 이 시는 근대 세계의 비전이 실패한 ‘양식’의 재창조를 보여준다. 양식의 종식과 그것의 재창조라는 현대인의 과도기적 상황은 백석 시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양식(樣式·style)은 가장 하찮은 물건에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몸짓과 행위, 행동들에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주었고, 추상적(문화적)이 아닌 하나의 감각적 의미는 곧 상징 속에서 포착될 수 있었다. 르페브르가 지적한 것처럼, ‘상품의 세계’가 전개된 현대 세계는 대양식과 상징, 신화, 그리고 기념비나 축제 같은 집단적 작품이 종말하고 일상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현대의 일상생활은 양식에 대한 향수, 양식의 부재, 양식에 대한 추구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다.³¹⁾ 백석 시에서 무속과 관련된 마을의 의례들은 개인과 공동체와 관련된 양식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석 시의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을 통해 마을 풍경, 음식문화, 공동체의 습속 등을 재현하는 것은 현대적 일상 속에서 자각한 양식의 부재와 그것의 재창조라 할 수 있다.

묘지와 뇌옥(牢獄)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神)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雲興里)를 떠나서 오백 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험리지 않은 중리(中里)로 왔다.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城川江)이 가깝고 또 백모관봉(白帽冠峰)의 시허연 눈도 바라보인다. 이곳의 좌우로 긴 회(灰)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야니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가재미·나귀』 (『조선일보』, 1936. 9. 3)

뱃지붕을 타고 민산바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산, 그 너머 산, 그 뒤로 보이는 하이얀 산만 넘으면 고향이 보인다고들 생각한다. 서울가면 아무뎨 산이 보인다고 마을에서 말하고 떠나온 그들이 서울의 개포에 있는 탓이다. 배들은 낮선 개포에서 본(本)과 성명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머리예다 커다랗게 붉은 글자로 백천(白川), 해주(海州), 아산(牙山)…… 이렇게 버젓한 본을 달고 금파환(金波丸), 대양환(大洋丸), 순풍환(順風丸), 이렇게 아름답고 길상(吉祥)한 이

31)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과랑, 2005, 86-98면 참조. 르페브르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격식이 없고 옛날의 양식을 사용하려는 노력과 그 양식들의 잔해·폐허·추억속에 머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하나의 양식을 부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름을 써 붙였다. 그들은 이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 빨사납게 서서 흰구름과 눈빨기를 하는 전기공장의 시꺼먼 굴뚝이 미워서 이 강에 정을 못 들이겠다고 말없이 가버린다.

「마포(麻浦)」(『조광』, 1935년 11월)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鎭川)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나는 실상 해보다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같이 양력(陽曆)보다는 음력(陰曆)이 좋는데 생각하면 오고가는 절기며 들고나는 밀몰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있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입춘(立春)」(『조선일보』, 1939. 2. 14)

백석은 시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몇 편의 산문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감각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옛날이 험리지 않은’ 시골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그 자신이 지닌 애착과 연민은 그의 시와 산문에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고향의 자연과 인간의 생활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대한 백석의 그리움은 그의 유년 시절에 투영되어 있다. 백석이 갖고 있는 과거지향성은 자신에게 기억된 고향 마을(시골)을 근대적 시간이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형상화하며, 개개의 장소, 공간, 지역 속에 퇴적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탐색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선적으로 흐르는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각 장소, 공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간화된 시간(spatialized time)’이며, 다선적(多線的)인 시간이다.³²⁾ 이는 근대의 강요된 동질적 시간에 대한 거부이며, 이 때 무속성은 근대의 규율에 포획되지 않는 반근대적 공동체의 향수와 가깝다.

32) 공간화된 시간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각각의 장소, 공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지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시간이며 해체된 시간이다. 전종한·서민철 외 지음,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52면.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틀/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든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러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중략)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금은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한울로 땅으로—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늘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북방에서」(1940)

결국 지나가고 '없다'는 인식 속에서 백석은 끊임없이 과거를 찾는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원천으로서 시공간을 재현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방언이다. 백석의 기억술에 있어 언어는 특별한 의미로 작용한다. 언어에는 그 자체 안에 감성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타퍼나 지식의 연상의 층이 침전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주의가 향해지면 발견이나 계시로 경험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자서전적 탐구라 여겨졌던 것은, 전통의 계시·뿔뿔이 흩어진 정체성의 재회수·신성한 섬광의 재회수가 되기 때문이다.³³⁾

33) 마이켈 M. J. 피셔, 「민족성과 포스트모던의 기억술」, 제임스 클리포드/조지 E. 마커스 편, 『문화를 쓴다-민족지의 시학과 정치학』,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2003, 323면.

4. 결론을 대신하여

백석의 시는 1930년대 후반 문화 지형 속에서 발견된 ‘동양’, ‘조선적인 것’과 평행하는 지점에 있으면서 당시 정책적으로 관리된 ‘무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본래적 공동체’의 한 유형으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근대적 시간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시공간을 기억하는 것이다. 1930년대 여전히 민간에 남아 있는 무속의 위상은 앞서 설명했듯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그것이 타자화되고 관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무속은 단순히 천민이나 우매한 민중의 민간신앙이 아니라 근대가 배척한 가치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백석 시의 기억술 가운데 무속적 상상력은 폐기될 처지에 있거나 잃어버렸다고 자각되는 문화에 대한 시적 복원을 가능케 한다.

한국에 식민지권력이 침투된 1910년 이후의 상황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생산된 식민지문화들의 “사실의 부분성partiality”을 담은 “서술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를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였다.³⁴⁾ 자신의 문화적 원천들이 근대적 시간의 지배, 제국주의의 지배를 속에서 그 지위를 상실해갈 때, 백석의 시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적 자아를 통해 현실의 억압적인 동일성을 묘파하는 시적 내러티브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민속학자들이 ‘무속’을 포함한 민속적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객관화했다는 사실과 대비되는 점이다. ‘민속학적 사고’를 통해 기층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민속학자들이 수집과 자료 보존을 강조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방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문자화된 문학적 수집, 특정한 장소에 위치되어야 비로소 근대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민속학자는 과거로부터 잔존물을 수집, 기록, 분류하며 우리가 자각하는 형태의 민속과 전통을 구성한다. 백석 시는 민속학자들의 방식과 다르게 민속을 인식하는 민속학적 감수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속학적 감수성’은 근대 이전 시대의 잔존물이면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지금 수집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상실감이 나타난 것이다.³⁵⁾

이러한 감수성은 특히 신세대문학, 특히 백석의 무속성의 중요한 부분이라

34) 최석영, 위의, 162면.

35) 岩竹美加子 편역, 앞의 책, 36~37면.

여겨진다. 무속에 대한 관심은 제국 일본 내부에서 변방에 위치한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백석 시가 지닌 무속적 상상력은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이름으로 소멸의 처지에 있는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며 그것의 상상적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의 맥락은 자기의 통일과 관련되며 과거로부터 이끌어낸 의미는 자신의 통일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비전은 문화적으로 특유한 것인 동시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서 변증법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³⁶⁾ 그런 의미에서 백석 시의 무속적 상상력은 1930년대 식민지 무속론이라는 답론적 상황에 대한 한 대응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과 문화의 양식을 회상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36) 마이켈 M. J. 피셔, 위의 글, 320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문장』

이승원 주해, 『원본 백석 시집』, 깊은샘, 2005

김재용 엮음, 『백석전집』, 실천문학, 2003

2. 연구논저

김동리, 「그 무렵의 문단 신세대」, 『나를 찾아서』, 김동리전집 8, 민음사, 1997

제임스 클리포드/조지 E. 마커스 편, 『문화를 쓴다-민족지의 시학과 정치학』,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2003

전종환·서민철 외 지음,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과랑, 2005

H. D. Harootunian, 「Figuring the Folk-History, Poetics, and Representation」, Stephen Vlastos, 『Mirror of Modernity-Invented Traditionals of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남기혁, 「현대시의 형성기(1931-1945)」, 오세영 외 지음, 『한국현대詩史』, 민음사, 2007

최석영, 『일제하 무속론과 식민지 권력』, 서경문화사, 1999

坂野徹, 『帝國日本と人類學者：一八八四-一九五二年』, 勁草書房, 2005

岩竹美加子 편역, 『民俗學의政治性』, 未來社, 1996

정종현, 「식민지 후반기(1937-1945)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박사논문, 2005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이승원, 『백석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2006

오태환, 「혼과의 소통, 또는 무속적 요소의 문학적 층위-김소월·이상·백석 시의 무속적 상상력」, 『국제어문』 42집, 2008

전형철, 「백석 시에 나타난 <무속성> 연구」,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32집, 2008

피어스 비텡스키, 김성례·홍석준 옮김, 『샤먼』, 창해, 2005

차승기, 『1930년대 후반 전통론 연구-시간·공간 의식을 중심으로』, 연세대박사논문, 2002

남근우,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 38집』, 2003.

엘리오프 오링, 나경수 역, 『민중과 민속의 장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9
- 남근우,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 주영하·임경택·남근우, 『제국 일본이 그린 조선민속』,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샤머니즘과 ‘민족지’(ethnography)의 형성」, 한국현대문학회, 2006
- 조현일, 「문장과 이후의 문학에 나타난 ‘조선적인 것’-김동리의 ‘비극적인 것’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화담론』, 소명, 2007

【국문초록】

백석 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무속성’이나 ‘무속적 상상력’은 백석 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이다. 백석 시의 무속적 사유에 관한 논의들은 그것이 ‘고향’과 같은 토속공간의 원형성에 맞춰져 있다. 백석 시의 ‘무속성’이 민족 공동체의 전형을 시화(詩化)했다는 것으로 강조되거나, 계몽주의적 근대의 유입 속에서 무속이 타파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상황은 다소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논거는 그의 시세계가 위치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무심할뿐만 아니라 그 주체의 당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백석 시의 ‘무속성’이 백석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미학이 아니라 동시대의 공유 가능한 주제였다는 점에 접근하고자 했다.

조선의 무속신앙이 고유 신앙으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일본 신도신앙의 침투라는 배경하에서였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역사적, 문화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담론적 상황 속에서 제국의 식민지 통합에 기여한 일본의 민속학과 달리 조선에서 ‘무속’을 포함한 ‘민속’의 발견은 ‘민속학적 사고’를 통한 조선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재고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식민지 무속론에 내재된 정치성과 민속학적 사고의 출현 속에서 백석의 ‘무속성’은 개인의 기억 속에 실재했던 ‘무속’을 발견하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무속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지역적 풍속, 변방의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지역적 감각에 다름 아니었으며 1930년대 후반 신세대 문학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시가 보여주는 것은 근대 세계의 비전이 실패한 ‘양식’의 재창조이다. 백석 시에서 이러한 양식은 무속과 관련된 마을의 의례들이다. 백석의 시는 근대의 규율에 포획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근거지를 구성한다.

백석 시에서 무속성은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이름으로 소멸의 처지에 있는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다. 그것의 상상적인 복원을 통해 과거로부터 이끌어낸 의미는 자기 동일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한다. 백석 시의 무속적 상상력은 1930년대 식민지 무속의 현실에 대한 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문화 양식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Abstracts】

A study on Baek Seok's 'shamanistic imagination' and the discourse of shamanism in colonization period

Kim, Eun-seok

The elements of shamanism, on Baek Seok's poetry aesthetically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topic. Shamanism of Baek Seok, the 1930s cultural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At that time, the Baek Seok unique rather than shamanism material was available for sharing. Shamanism in the modern world was the target of the marginalized and ignored, but in the late 1930s, the interesting of shamanism is associated with the colonial policy. Kim Dong-Lee, including the passage of time, a new generation of group in literary circles, 'Oriental', 'ancient' was reflected in the works for the interest. As a new generation of literary artists Baek Seok is also parallel to this trend. His poetry now at the point of his own past and to restore the culture of the past, by recall.

Baek, Seok's poems like 「가즈랑집할머니」, 「오금덩이라는골」 and 「마을은 맨친구신이 돼서」, also leave Shamanistic trace. His poems reveal the absence of form in everyday life. He was to reproduce the local community, unique culture and customs are preserved. an recreate the show. At his poem, the village including almost the villagers is ruled by Shamanism. Baek, Seok always missed his childhood memory and hometown. His poetry is being destroyed now, that history can be lost

forever unless the crisis was reflected. His work appeared in a crisis that has characterized some kind of cultural nationalism. Baek Seok's shamanistic imagination in the late 1930s are response of colony cultural policy and restoration is the process of self-identity.

Key words: Baek Seok, shamanistic imagination, shamanism, Discourse of shamanism, new generation, style, cultural identity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